

오늘의 기사관

8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
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
호텔.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가 '새로운 패
라다임, 지혜경영이 살 길이다'를 주제로 강연.

전' 수상자 10명 이상. 수상자 중 대상 정영순 강릉
대 국어국문학과 강사는 '광촌 금기어 금기행위
연구', 최우수상 임종진 무안문화원 향토문화연구
소장은 '모춘 당산제에 대한 소고', 최우수상 김강
산 태백문화원장은 '태백산 사길령의 문헌 조사'
에 대해 발표.

진군 성화대학. 가정위탁 아동 50명·한국부인회
25명 등 75명이 참여해 영양 간식 만들거.
▶제 18회 남도예술은행 서화작품 토요경매=
오전 11시 진도군 윤림산방 전시실. 한국화 17·서
예 6·민화 7점 등 30점 경매.

씨가 직접 통기타 라이브 반주. 김종필·박상은 씨
등 출연.
▶이화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8일(금) 오후 7
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목포시립합창단 제 50회 정기연주회=8일
(금) 오후 7시 목포문화예술회관.

뉴스퀴즈

41.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 15회 아시안게임이
지난 2일 새벽(한국시간)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45개국 1만2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해 오는 15일까지 39개 종목에 424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입니다. 한국은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① 도하 ② 바그다드 ③ 두바이 ④ 이스탄불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
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쿼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지난 1일 시작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중부세) 신
고·납부가 네티즌들의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으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중부세 납부 거부와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반발하는 등 조세 저항 움직임
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국세청이 중부
세 납부 거부 선동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
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수백개의 댓글이
올라오며 논쟁이 벌어졌다.

마린보이 박태환 '끝 모르는 질주'

준기씨도 내년 1월 12일 결혼식을 치른다.
민씨는 민병철 아학원으로 유명한 민병철 중앙
대 교수 아들로, 현재 모 법무법인에서 미국 변호
사로 근무 중이다.
지난 2일 새벽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된 제 15회
아시안게임도 검색 빈도가 높았고, 아시안게임에
서 자유형 남자 200m우승에 이어 400m에서도 금
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수영사의 새장을 연 '마린
보이' 박태환도 검색 순위에 올랐다.

공연

▶세미 창작 뮤지컬 '우리 사
랑해도 될까요?'=8일(금) 오후
4·7시30분 광주공동예술극장.
창작곡 6곡과 기존 가요 2곡을 묶은 창작 가요곡.
원광연씨가 극작과 연출 맡고 작곡을 맡은 김두선



가수 장우혁이 선보인 몸은 45도 기울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른바 '매직 댄스'가 네티즌들의 공감을 자극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제15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방비탁대회
백 26은 이 정석
의 완성점이다. 이
수를 두지 않으면
'참고도'의 흑 1로
귀에 붙어오는 수
가 있다. 이때 백은
2로 찢히는 정도인데 흑 5로 낚은 다음 6으로 석점을 잡더라도 13까지 되고 나면 이것은 흑의 대성공이다. 실리와 세력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백은 아직도 두 눈이 불확실하다. 26의 수비가 필요한 까닭이다. 흑 27은 매우 적절한 협공으로 다

고전정석 등장 3보(26~42)
白 정장호 5단 <포스코>
黑 이강민 5단 <PCA생명>
시한반 고전정석이 등장한다. 정석은 당대 고수들의 고심의 결정체다. 정석을 외우기만 해도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고수들이 고심 끝에 찾아낸 최선의 수단을 얼마든지 늘어 놓을 수가 있다.
바둑을 배우게 되면 프로들의 기보 놓아보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틀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 유. 불리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백 42는 무슨 뜻일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창호·창하오 삼성화재배 정패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패권이 이창호와 창하오의 대결로 압축됐다. 이창호 9단이 7일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열린 제11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3번기 제2국에서 백홍석 5단을 227수 끝에 흑 불계로 꺾고 종합전적 2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이 9단은 중반 이후 백의 느슨한 완착을 비집고 미세한 국면을 만든 뒤 중반 끝내기 단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립, 승부를 마무리했다.
1패를 안고 있던 서봉수 9단은 또다시 중국의 창하오 9단에 182수 끝에 흑 불계패했다. 결승전은 내년 1월22일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8일(음 10월 18일 辛未)
子 36년생 오전은 편안하지만 오후는 바빠지리라. 48년생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주변사람을 섬기게 도우면 자연스레 득재 하리라. 60년생 꼭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다. 72년생 분주한 하루로다. 84년생 열일이 괴롭다. 행운의 숫자: 21, 25
丑 37년생 주변이 변화하니 대안을 마련하라. 49년생 직업직장 변동이 있을 수 있다. 61년생 보답을 바라지 말고 도우라. 73년생 차근차근 전진하면 큰 발전이 있을 수다. 85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실행은 빠르게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08, 37
寅 38년생 소망이 이루어지니 준비하고 있라. 50년생 졸주하고 노래하나 마음 무겁다. 62년생 나이에 관계지 말고 뜨겁게 진행하라. 74년생 흐리리리 날씨가 개이고 갱나 해가 뜨리니 미리미리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09, 36
卯 39년생 거리낌이 없고 마음이 편하니 생각대로 행하라. 51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즐겁지만 하구라. 63년생 간절하게 바란던 일이 이루어지니 감사하며 지내라. 75년생 뜻밖의 재난을 만나도 대비하고 있으면 큰 고생은 없다. 행운의 숫자: 07, 40
辰 40년생 상대의 고민을 도우면 자신도 편안하다. 52년생 팔뚝을 살펴보고 대고 개발 할 수다. 64년생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라. 고민이 커진다. 76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들어오던 복도 달아나니 원만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21, 25
巳 41년생 근친자와의 돈거래는 신용상실의 심마라. 53년생 양보 하면 쉬운 일이 고집으로 인해서 꼬일 수 있다. 65년생 졸주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77년생 외로운 독신자는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14, 38
午 42년생 새벽녘의 황제가 보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4년생 허황된 일을 벌이지 마라. 망신살이 앞어 있다. 66년생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78년생 억울한 일이 생겼어도 담담하게 따라져라. 행운의 숫자: 17, 29
未 43년생 시비는 무례한 언동에서 발생하니 생각하고 말하라. 55년생 오늘은 편안하니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대비하라. 67년생 몸은 고달픈데 마음은 평안하니 가족을 불러보라. 79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만사형통하라. 행운의 숫자: 03, 45
申 44년생 먼 곳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니 기쁜 날이다. 56년생 말다툼만 피하면 평화스런 하루로다. 68년생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이웃을 울린다. 80년생 술로는 외출하라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05, 26
酉 45년생 어른이 안 보인다. 두투두투 살펴보라. 57년생 속단은 이르다. 노력이 더 필요하다. 69년생 外難內慮 같은 하려나니 속은 비어 있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리라. 81년생 잔치 집에 가지만 마음은 무겁다. 행운의 숫자: 01, 35
戌 46년생 진행하는 일을 한번 더 살펴보라. 58년생 아내를 살펴보고 대고 개발 할 수다. 70년생 아들이 고민한다. 고민을 들어보라. 82년생 부모님을 찾아보고 건강을 살펴보고 활동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8, 32
亥 47년생 외출할 때 차량을 주의하면 소액이 고지리라. 59년생 행한 일을 생각해보라 큰 화의 불씨가 보인다. 71년생 큰 구름은 잡히지 않으니 생각지도 말라. 83년생 상대를 함부로 함하게 하면 자신은 더욱 힘들어진다. 행운의 숫자: 04, 44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793>
I don't think she really thinks about it
제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A: Does your daughter like wearing uniforms to work?
B: I don't think she really thinks about it.
A: I must be hard to recognize her in a crowd of workers.
B: No, she's easy to recognize at work. She's the one with a crowd of boy trying to get her attention.
A: 선생님의 따님은 제복을 입고 출근하기를 좋아합니까?
B: 제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A: 분명 직원을 중에서 그녀를 알아보기란 어려울 겁니다.
B: 아니요. 저희 딸은 직장에서 금방 눈에 띄어요. 많은 사내들이 한 아가씨의 관심을 살려고 하는데 그 여자 애가 바로 제 딸입니다.
wear : 입다, 착용하다
wear @ to work : @를 입고 출근하다
must be ~ : 분명 ~ 일 것이다
in a crowd of ~ : ~ 사람들 가운데서
get one's attention : ~의 관심을 끌다
Does he like ~? : ~하기를 좋아하는가?

오하이오 니혼고 <793>
豫約(よやく)したいんですが
예약하고 싶은데요
A: 豫約(よやく)したいんですが。
B: いですか?
A: 今週(こんしゅう)の土曜日(どようび)です。
B: 行(い)き先(さき)は?
A: 東京(とうきょう)です。
B: 分(わ)かりました。
A: 예약하고 싶은데요
B: 언제입니까?
A: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B: 행선지는?
A: 동경입니다
B: 알겠습니다
豫約(よやく): 예약
今週(こんしゅう): 이번주
~たい: ~싶다

니하오 쑹구위 <511>
看中
(보고) 마음에 들다
A: 您怎么挑选对象?
B: 没怎么挑, 也不能随便挑..
A: 那当然, 你得跟人家谈好恋爱..
A: 缘分, 缘分, 缘分, 缘分, 缘分..
B: 缘分, 缘分, 缘分, 缘分, 缘分..
A: 缘分, 缘分, 缘分, 缘分, 缘分..
B: 缘分, 缘分, 缘分, 缘分, 缘分..
A: 缘分, 缘分, 缘分, 缘分, 缘分..
B: 缘分, 缘分, 缘分, 缘分, 缘分..

한자 이야기 <411>
尾生之信 (미생지신)
꼬리 미, 날 생, 어조사 지, 믿을 신
미생지신(尾生之信)은 미생의 신이라는 말로, 우직하고 융통성이 없어 바보스러울 정도로 정직한 것을 비유하고, 또는 굳게 신의를 지키는 것을 비유한다.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에 미생고(尾生高)란 남자가 살았는데, 성품이 우직(愚直)하여 한번 약속(約束)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어느 날 사랑하는 여성과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먼저 도착하여 다리 밑에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상류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 강물이 차츰 불어났지만, 그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다리 위에서 지켜보면 사람들이 위험하니 어서 피하라고 외쳤지만, 미생은 약속(約束)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信念)으로 다리 아래에서 교각(橋脚)을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불어난 강물 때문에 부실(不實)하게 만들어진 목조(木造)다리는 휩쓸려 떠나려갔고, 교각을 붙들고 있던 미생도 함께 떠나려가 익사(溺死)하고 말았다. (史記) 蘇秦傳) 작은 신의를 완고할 정도로 계속 지키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성어이다. 다른 말로 포주지신(抱柱之信)이라고도 한다.